

시대분별_Timing VII.

창조적 영성이 없으면 다원주의 시대의 도전에 결국 무너집니다.

1.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중요한 이유 - 신앙의 절대성

[출애굽기 20:2-3] 2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3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을 삶 속에 정렬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다. 애굽의 이방문화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 개념을 갈아엎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이방의 신들과 다르다고 말씀하신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의미 -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유일한 민족) 절대적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당신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속성은 '절대적'이다. 타협할 수 없다. 다른 어떤 존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진짜 사랑의 대상이 된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선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다. 당연하다. 진짜 사랑은 질투한다.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이 '절대적'의 의미이다.

다원주의 시대속에서 '절대신앙, 즉 유일신'을 믿는 종교들을 향한 도전은 앞으로도 거세질 것이고, 모든 미래의 분쟁의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자신이 믿는 진리에 절대성을 두고 있는 종교들이 이런 다원주의 물결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지가 숙제로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원자로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과 영성을 향한 도전 또한 거셀 것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십계명에 기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해야한다. 그래서 '절대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절대믿음'이 필요하다.

2.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주는 도전

[출애굽기 20:4-5] 4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5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두 번째 계명은 사면에 뿌리를 둔 무속신앙의 진화이다. 즉, '우상'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의 도전은 '신'이 아닌 '자신'에 근거한 무속신앙이다. 무속신앙의 뿌리는 자기만족을 위한 '이기주의'에 있다. 신을 섬기는 고등종교와 다르다. 그래서 무속은 절대적인 어떤 교리가 없다. 다른 어떤 모양과 혼합이 가능하며, 그 혼합의 형태가 '우상'이라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기독교-무속/ 불교-무속/ 유교-무속)

사실 두 번째 계명의 도전이 더 강력하다. 정확히 싸워야 할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교묘함의 옷을 입고 변형되어 있는데 그 뿌리는 자기만족, 자기실현에 있다. 하나님 없는 인간중심의 복된 세상이 인본주의의 핵심이다. 그것의 외형적 열매가 보여지는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이란, 하나님 없는 자아실현의 형상이다. 결국 '자신'을 섬기는 것이며, 자신을 섬기는 것이 '이기주의, 인본주의'이다. 이러한 인본주의의 키워드는 '인간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규범들을 부셔버리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은 문명이 발달된 프랑스, 캐나다, 유럽, 미국 등에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다. 성경적으로 그 뿌리를 찾아 본다면 두 번째 계명에 반발하는 인간의 도전이다.

3. 다원주의 시대에서 절대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다.

4. 하나님의 계명을 다원주의 시대에서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에베소서 3: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화시키는 일이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일을 말한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속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하는 일이다. 이것은 속사람이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듣고, 보고, 말하고, 계획하고,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삶이다.

5. 다원주의 시대에 필요한 창조적 영성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창조적 영성 (창조적 세계관)을 갖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창조물에는 창조주의 생각과 뜻이 담겨져 있다. 그 상태를 '의미'라 부른다. 그래서 창조적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영성이다. 다원주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인간의 의미로 모든 것을 파괴한다. 하나님의 뜻, 바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의미란 바로 '성경'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조명해야 한다. 말씀이 우리 삶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6. 속사람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구체적이다. 다른 차원의 삶을 기경하는 것이다.

다른 차원의 삶이란 '구분'을 의미한다. (기경과 새김)

하나님처럼 생각 = 생각을 기경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보는 것 = 보는 것을 기경한다. 듣는 것을 기경, 말하는 것을 기경한다. 이 과정이 바로 '새김'의 과정이며 이 새김이 '교육'이 된다.

[디모데후서 3:16-17]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17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교육의 핵심은 어떤 일에 대한 가치관을 확실하게 형성해주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정의내릴 수 있는 힘, 관점을 갖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속사람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과정이 반복되는 '새김'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새겨진 모습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한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7. 분별의 단계

결국 성경은 다원주의 시대속에서 '분별'의 능력을 갖게 한다. 분별함이란 성숙함을 말한다. 아이들은 분별하지 못하지만 장성한 자는 분별한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한 삶을 기경하며, 구분하며, 단장하는 일이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의 모습이다.

[시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악인의 삶으로부터 구분이 일어나는 사람이다(1절).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와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다. 결국 이 사람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8. 새김의 과정

우리의 영혼육 가운데 '새김'의 과정이 필요하다. 특별히 혼(정서, 생각)의 새김이 필요하다. 내 몸에 체화 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새김이며 훈련이다. 반드시 새겨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은,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것이다. 속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반복적 교육을 통한 새김이 일어나는 것, 이 속사람의 온전함은 곧바로 우리 겉사람에 영향을 준다. 이 사람의 영혼육은 하나님의 뜻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이 구별된 사람이다.

9. 결국 신앙이 무너지는 이유

생각과 정서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정렬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첨가되어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세상의 정화되지 않은 정보들이 무방비로 침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상태는 속사람이 엉망이 되며, 결국 영향을 주고 실패하게 한다.

10. 다원주의 시대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한 성경적 세계관을 명확히 하라. 분명히 하라.

모든 영역의 관점 정렬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작해야 한다. 단련시키고 경작한 만큼 강해진다. 특별히 영적인 영역 (기도 생활, 예배 등) 뿐만이 아니라 지식, 이성, 성품, 정서 등을 경작하라. 그렇게 함으로 영의 풍성함을 내 생각과 마음에서 실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에베소서 3:18-19]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자 했다. 이 말씀을 집중하여 우리의 지식과 정서를 특별히 구체적으로 경작해야 한다.